孝悌忠義
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에 友愛있으며, 孝誠을 다하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咸安趙氏大宗會報

宗訓 淸風百世 睦祖崇宗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음력 辛丑 11월 17일) < 1 > 제78호 등록번호 함안 바 0001(등록일 2012. 8.16)

발행처 : 咸安趙氏大宗會 | 발행인 趙郁來 | 편집인 趙鏞得 |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4 TEL.055-585-6787~8 FAX.055-585-6869 | www.hamanjo.net www.hamanjo.co.kr

다사다난했던 辛丑年을 보내면서.....



신축년 한해도 어느새 세모를 향하고 있는 이즈음에 종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COVID-19)의 여파로 종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 금년에도 조상님께 제대로 예를 갖추어 시사(時祀)를 모시지 못했을뿐더러 일족 간에 돈독한 족의(族誼)를 나누지 못한지도 오래되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연일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 국민의 70%가 넘는 인원이 꾸준하게 코로나(COVID-19)예방접종을 해서 일단 위급한 고비는 넘었다고 하지만, 건강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통해 코로나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해도 철저한 예방을 통해 서서히 회복해간다면 조만간 이전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이전부터 도시화와 개인주의 영향으로 종중의 대소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장년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 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차에, 조해진 국회의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께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제159호)인 어계고택 체험관' 건립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체험관은 어계고택 옆에 건립하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어계 선생의 드높은 절의 정신을 체험, 전승하는 교육의 장소로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계고택 체험관과 우리 함안조씨의 자랑인 충의비원(忠義碑苑)의 십삼충비(十三忠碑)와 독립유공자비, 그리고 서산서원, 채미정, 쌍절(雙節閣) 등을 체험장으로 연계하여 함안조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정신을 함양하고 '백세청풍 숭종목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 도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북리 전서공(典書公) 묘역을 함안군과 협의하여 문화재 등록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종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젊은 청장년들과 소통하여 대종회와 원·지파 종중의 대소사에 더욱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통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대로 청장년 세대에게 족보교육과 선적 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함안조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보학 연구 활동을 통해 보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함안조씨의 얼과 전통문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종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대종회와 원지파 등에서 계획했던 위선(爲先) 및 숭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더라도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그 뜻을 계승하고 자신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조상님의 음덕으로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辛丑年 咸安 3先所 墓享 奉行



원북재 묘향



하림재 묘향



응암재 묘향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辛丑年 함안 3선소 묘향을 작년과 같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범위에서 3선소 각 재실에서 合祀 봉행하였다.

2021년 11월 15일(陰 10월 11일) 09시 원북재에서 典書公 이하 8위, 10시 하림재에서 寺正公 이하 5위, 11시 응암재에서 貞節公 이하 3위를 당일에 모두 享拜하였으며, 특히 멀리 경북 예천에서 禦侮公 후손 5명이 참례하였다.

금년에는 종손이 사정으로 참례하지 못하여 헌관을 참례자 기준으로 집사분정하여 봉행하였다. 그리고 11월 20일(토) 판결사공파 임원단 일행이 3선소를 배알하고 묘향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신축년 집사분정	선소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	집례
	원북재	性 五	旭 來	文 奎	東 濟	鏞 式
	하림재	鏞 岩	貞 濟	鏞 杉	權 濟	鏞 式
	응암재	容 來	大 濟	漢 濟	萬 濟	鏞 式

묘향 헌성자	헌성자	금 액	비 고
	容 來	중식대 34만9천원	대 구 (부회장, 어모공파)
	洪 來	50 만원	경기 의정부 (고문, 집의공파)
	性 五	30 만원	경남 김해 (고문, 동지공파 종회장)
	鏞 岩	10 만원	경남 창원 (고문, 두암공파)
	鏞 杉	10 만원	경남 창원 (부회장, 절도사공파 종회장)
	虎 濟	10 만원	경남 창원 (자문위원, 절도사공파)
	孟 濟	5 만원	경남 고성 (자문위원, 절도사공파)
	聖 濟	10 만원	대 구 판결사공 후 오곡종중 회장
	길 래	10 만원	부산 남구



채미정 기문 편액 제작 설치 예정

* 1735년 漁溪 선조의 9세손 영석(榮祏) 謹書
* 1735년에 편액으로 판각
* 도난 우려로 현재 함안군 박물관에 원본보관
* 2001년 5월 대한민국 명장 '최환갑'에 판각 의뢰- 함안박물관 원본 글씨체 형태 그대로 유지해 판각 요청
* 2021년 12월 판각 완료
* 추후 대종회와 함안군의 협의로 현판식 개최 예정
(채미정:문화재자료 제590호(생육신 조려 유적)



국천제 봉행 및 서산서원 정기총회 개최

지난 10월 14일(陰 9월 9일) 10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에서 신축년 국천제를 봉행하고 이어서 11시 30분에는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대책을 준수하고자 참례 인원을 전면 통제하고 최소 집사, 종사자들 만으로 봉행하였는데 초헌관에 원장 許捲洙 문학박사, 아헌관 全暎秀 전 함안군의회 의장, 종헌관 趙權濟 전 함안조씨대종회 감사, 집례 趙文奎 대종회 전례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축 趙顯判 대종회 자문위원 등 7명의 집사들과 서산서원 임원 및 이사진이 참석하여 예년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생육신의 충절을 기리었다.

이어서 2021년 (사)서산서원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안)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원·지파 辛丑年 墓享 소식

내헌공파종회 묘향 봉행

내헌공파 종회(종회장 鏞河)에서는 지난 11월 9일(음 10월 5일) 구미시 신동에 위치한 영모재(永慕齋)에서 내헌공 휘 연(耐軒公 諱 淵), 참판공 휘 정언(參判公 諱 廷彦) 부자와 검암공(劒巖公 諱 堣), 망운정공(望雲亭公 諱 址), 율헌공(栗軒公 諱 墀) 선조와 누대(累代)의 묘향을 집례 동제(飽亭 東濟), 축 만제(南江 萬濟) 종원이 맡아서 받들었다.

금년 묘향은 우천으로 묘전 묘사를 봉행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내헌공 경호재(倞浩齋)에서 종손과 망운정공 재식(在軾) 종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종회장과 안암 성오(安岩 性五) 대종회 고문과 송암 용암(松岩 鏞岩) 고문의 덕담(德談)을 듣고 내년을 기약했다.

德谷公 墓享 奉行

지난 11월 19일(음 10월15일)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42 德谷公 휘 承肅(승숙) 선소에서 묘향을 봉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종원의 참례가 예년보다 적었으나 후손들의 안위를 기원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엄숙하게 배향하였다. 초헌관은 종손 昌顯(함양), 아헌관은 전주의 奉濟, 종헌관은 함양의 龍雲, 집례는 전주 成濟(종회장), 축은 화순의 廷良 종원이 수고 해 주었다.



참의공파종회 묘향 봉행



지난 11월 17일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소재하는 유경재(迪敬齋)에서 신축년 참의공파종회 묘향을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문천군수 휘 숙(鸛), 참의공 휘 익도(參議公 諱 益道) 외 3위의 묘향을 초헌관 승제(承濟), 아헌관 형래(亨來) 종헌관 국제(國濟) 집례 曉濟 종회장, 축 현갑(顯甲) 종원이 수고해 주었다.

수상 소식

두 종인(宗人)이 장원(壯元)을....



대상부 장원 聖來

(사)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지회장 金在彦)가 주최, 주관하는 제20회 전국국악정가 경연대회가 지난 9월 5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非對面)으로 행사를 치르는 곳은 있었으나 대면하여 경연(競演)한 곳은 거의 없었는데 이날은 대면으로 질음시조부(叱音時調部)와 명인부(名人部), 대상부(大賞部)의 3종목이 경연되었다. 주최 측의 빈틈없는 준비와 관계자의 도움으로 신청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가릉빈가(迦陵頻伽)의 목소리로 겨루었는데, 질음시조부 장원에는 거의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온 조장제(趙張濟, 都事公派) 종인이, 명인부는 통영의 김순호씨가 대상부에서는 조성래(洙泉 趙聖來, 대종회 전회장) 대종회 대표고문이 장원상을 받았는데 洙泉 대표고문은 5년전부터 창원향교(전교 李枝華) 시조반에서 여산 서상수(輿山 徐常洙) 전 (사)대한시조협회 부이사장에게서 사사(師事)하였다.

시조는 600여년전 고려말에 발달한 시조시(時調詩)에 조선 영조(英祖) 때 가객 이세춘(李世春)이 운율(韻律)을 올려 시절가조(時節歌調)로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시조창으로 자리매김한 전통문화이다.

우리 문 내에서는 서화(書畫)에 능하셨던 작고하신 송석 조남규(松石 趙南奎)께서 중책을 맡아 시조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조말래(小湖 趙末來, 四味堂公派)님은 (사)한국가사가곡협회 부산지회 고문이시며, 또 조정제(西草 趙貞濟 澗松堂公派), 조동제(飽亭 趙東濟 國唱, 斗巖公派) 자문위원과 조덕제(茶泉 趙德濟 參判公派) 종인, 조석일(隨雲 趙碩一, 四味堂公派) 등 많은 분이 활동해 오고 있다.

趙漢奎 西山書堂 院長 진주문화원 제35회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에서 입상...



진주문화원(원장 김길수)은 지난 11월 10일 개천예술제 축하행사 일환으로 개최한 제35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시상식을 진주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지상백일장 대회로 시제는 추안(秋雁)이며 압운으로 청(淸), 정(程), 경(驚), 성(聲), 명(明)으로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518명의 많은 문사들이 참여해 진주문화원에서 주최한 전국한시지상백일장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우리 문중 觜江 趙漢奎(37년생, 남계공 후대소헌공파) 西山書堂 院長께서 출품하시어 차상(2등)에 입선하였다.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秋 雁(추안)

天高野闊氣无淸
하늘 높고 들이 넓어 공기 더욱 맑으니
雁陣南來萬里程
기러기 무리 지어 만리 길을 날아왔네
避繳銜蘆奇智秀
피작하려 함로하여 지혜가 빼어나고
度雲作字異才驚
탁운하여 작자하니 재주가 놀랍도다.
泛卮點點橫空影
나르는 그림자는 내 술잔에 떠 있고
響耳嗈嗈喚偶聲
짝 부르는 소리가 나의 귀에 울리네
兄弟多情徵表鳥
형제간의 다정함을 표징하는 계절새
嘆哉見爾正賢明
오호라! 기러기가`정말로 현명하구나.

문예 등단 소식

82세 두 동갑내기 노옹들이 한국 문단에 등단하여 화젯거리다. 대종회 사무총장 '효제'와 자문위원 '특래'가 각각 신인문학상 시 부문과 수필부문에 당선되었다.



효제 (曉濟, 思軒,우후공 후 참의공파) 대종회 사무총장이 월간 '한국 국보문학' 제156기 신인문학상 詩 부문에 당선되어 현대시인으로 등단했다.

詩 '백 이 산' 외 2편으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었으며, "시상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쫄깃하고 향기롭게 표현하는 타고난 시적 감성을 품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특히 작품 '백이산'에는 정절공 후예의 번창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도 했다.



특래(特來, 靑沙, 내헌공 후 지악공파) 대종회 자문위원은 종합문예지 '문학세계' 의 신인문학상 수필부문에 당선되어 수필가로 문단에 등단했다.

그간 일간지에 경제 칼럼을 연재하는 등 집필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 늦깎이 등단이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노옹(老翁)이 아닌 노동(老童)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려한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백 이 산

조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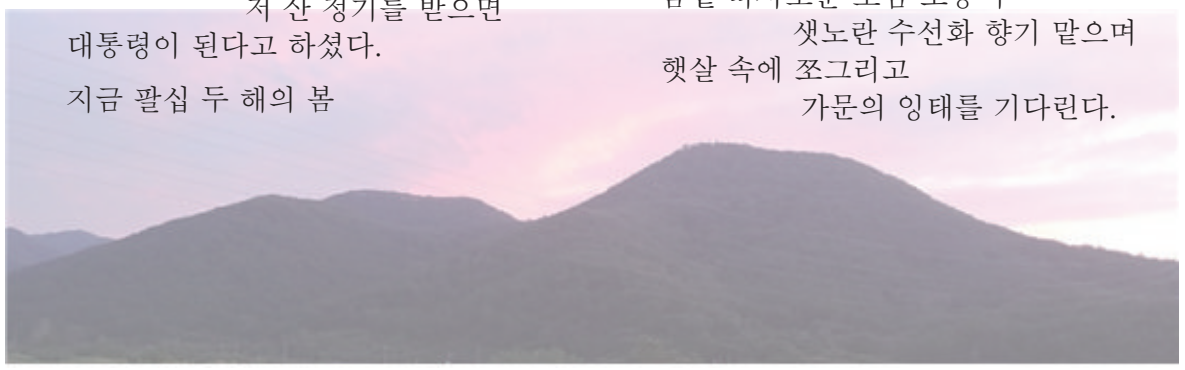
문밖에 나서면
마주 보는 백이산

어릴적 아버지는 늘
저 산 정기를 받으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다.

지금 팔십 두 해의 봄
혹시 손자 현빈이 녀석이... 아니면
증손 우진이 재윤이 재원이 놈들일까

봄마다 가문의 꿈을 꾸며
또 한 시절을 맞이 한다.

봄볕 따사로운 토담 모퉁이
샛노란 수선화 향기 맡으며
햇살 속에 쪼그리고
가문의 잉태를 기다린다.



백이산(伯夷山)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소재. 높이 369m 생육신 어계(漁溪) 조려(旅) 후손의 세거지

파 도

自然 趙益濟

쏴-철석 차르르르 한 번에
백년이 간다
돌 하나를 이리굴리고 저리굴리고
쏴-철석 차르르르 백년이 가고 있다
석공은 女人의 裸像을
밤낮으로 彫琢한다
이리보고 저리보고 마음까지도 만져보고/
어디 하나 거칠세라 마음조리는 파도는
조각가 이다/
긴 세월, 햇빛 달빛은 바람을 모우고
해운대 갈매기도 불러
조공의 어깨에 힘 불어넣고
동백꽃 사연도 만들고 있다
낮에는 갈매기들의
노랫소리로 작은 모래알 속에
돌부처를 만들고/
밤에는 별들의 속삭임으로
마음도 다듬는다/
파도는,修道하는 돌부처를 만든다
별들은 반짝이며 그를 보고 있다
쏴-철석 차르르르 백년이 가고 있다

(시인 함안 군북 출신)

종태 종원 광주고검장 취임



조종태(내헌공 후 동지공파) 고검장은 조용현씨의 아들로 1967년에 태어나 아라초등학교, 함안중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검사가 되었다.

조 고검장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을 시작으로 두루 요직을 거친 인재로 최근에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이번에 광주고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조 고검장은 (54·25기)은 "과거의 검찰을 기억하고 고집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 제도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제도와 여건에 걸맞은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함안조씨 종회보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16일

조영준 교수,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선정



조영준(도암공파 조훈제의 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21년도 K학술확산연구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모한 것으로서,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 해마다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이다.

경제·사회영역에서는 조영준 교수의 연구팀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연구주제는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다. 서울대학교 국가지원 연구센터의 하나로서 K학술확산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며,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국 경제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매년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K-MOOC 및 SNUON을 포함한 국내외의 대표적 플랫폼에 탑재하고, 연구서 및 대중서를 비롯한 각종 단행본을 국문 및 영문으로 출판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경험을 전세계로 확산할 것이다. 교내의 공동연구원으로는 경제학부의 이철희, 홍석철 교수, 사회학과의 임동균 교수가 참여하였다.

교수 및 연구원뿐아니라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며, 학제간 교류를 통해 경제•사회•역사•민속•문화 등 여러분과 학문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K학술 확산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수행과정에서 경제학부,경제연구소,한국경제혁신센터 등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를 통해 우리학부의 교육 및 연구에도 기여하는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芝山 趙鏞洙 「芝山산문집」 발간



芝山 趙鏞洙(耐軒公 후 澗松堂公派) 대종회 고문의 글들을 차남 孝濟가 정리하여 산문집을 발간했다.

1933년 군북면 동촌리 (신창부락)에서 출생하여 학창 시절 6. 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를 몸소 겪은 참전용사로 참전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서, 호국영웅기장 등을 수여한 호국영웅의 회고록이다.

(孝濟 H, 010-2912-4576)

함안조씨 문적총관 연재〈8〉

옥봉공(玉峰公) 휘 순(舜)

8之興 - 9 天啓 - 10 悅 - 11 安 - 12 旅 - 13 銅虎 - 14 舜

○ 금은공(琴隱公) 휘 열(悅)의 현손이며, 정절공(貞節公) 어계선생(漁溪先生) 휘 여(旅)의 손자이다.
○ 자는 요경(堯卿)이며, 호는 옥봉(玉峰)이다. 세조 11년(1465)에 출생하여 성종17년(1486)에 생원(生員)·진사(進士) 양시에 합격하고, 성종 23년(1492)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 행장(行狀)

숭문원(崇文院)에 선임된 후 연산군4년 무오(1498)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배명(拜命)되어 당시의 영상(領相) 노사신(盧思愼)을 탄핵하다가 면직되기도 하였다.

중종반정 후에 복직되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홍문관 교리 (弘文館校理)직제학(直提學)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도승지(都承旨)·충청병사(忠淸兵使) ·김해부사(金海府使)·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예조참판(禮曹參判) · 이조참판(吏曹參判)·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22년(1527) 6월 28일에 돌아가시니 향수(享壽)는 63세이다. 배(配) 정부인(貞夫人)은 경주 정씨(慶州鄭氏) 진사(進士) 희영(希英)의 따님이다. 묘소는 함안 하림 고묘(考墓) 아래이다.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이 서문을 지은 『옥봉일고집(玉峯逸稿集)』 1책이 전한다.

⊙ 참봉 김해 허추공 묘갈명과 서문 (參奉金海許公錘墓碣銘幷序)

공의 휘는 추(錘)요, 자는 평중(平仲)이며,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시조의 휘는 옹(邕)이니 전리판서(典理判書) 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이며, 고조의 휘는 소유(少㫜)이니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고, 증조의 휘는 구(㫜)니 중랑장이요, 조부의 휘는 시(峕)이니 부호군(副護軍)이며, 황고(皇考)의 휘는 문손(文孫)이니 전력부위(展力副尉)이다.

비(妣)는 진양 정씨(晉陽鄭氏)로 통례원 봉례(通禮院奉禮) 휘 군(群)의 따님이다.

공은 단종3년(1455) 모월 모일에 태어났다. 젊어서 학업에 뜻을 두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과거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였는데, 어느 날 문득 탄식하기를, "어찌 외물(外物)을 얻을까 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겠는가" 하고는 과거에 응시하여 명리(名利)를 얻으려는 뜻을 버렸다. 그리고는 매일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생을 자연 속에서 살았다.

중년에 천거에 의하여 기자전 참봉(箕子殿參奉)의 벼슬을 받았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영욕(榮辱)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공은 중종 16년(1521) 5월 3일에 병환으로 자택에서 운명하였는데, 예순 일곱이었다. 이듬해 중종 17년(1522) 3월 20일에 방어산 자락의 간좌(艮坐)에 묻혔다.

아 아! 공은 천성이 신중하고 온후하여 겉치레를 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항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니, 이 때문에 향리(鄕里)에서 존중받아 이름이 알려졌다.

공은 이조판서(吏曹判書) 강숙경(姜叔卿)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공작(公綽)을 두었다. 공작(公綽)은 생원(生員) 이명윤(李明胤)의 따님을 맞이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의 이름은 유(裕)이다.

공작(公綽)이 공의 행적을 기록한 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묘갈명(墓碣銘)을 부탁하였다. 회고해 보면, 공의 선고(先考)께서 나의 할아버지인 도승지공(都承旨公 ; 漁溪先生)과 서로 왕래하며 친분이 두터웠고, 공 또한 나의 선대부(先大夫)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니, 이제 공이 타계하심에 묘갈문을 쓰는 것은 당연한 예의이고 의리로 보아서도 사양할 수 없기에, 삼가 이렇게 서문을 짓고 동생인 진사(進士) 삼(參)에게 명(銘)을 짓게 하였다.

⊙ 신도비명과 서문(神道碑銘竝序)

공의 휘는 순(舜)이며 자(字)는 요경(堯卿)으로 함안조씨(咸安趙氏)이다. 공조전서(工曹典書) 휘 열(悅)이 고조부이며, 증조부는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인 휘 안(安)이고, 조부는 증 도승지(贈都承旨)인 휘 여(旅)이며, 아버지는 군수(郡守)로 증 참판(贈參判)인 휘 동호(銅虎)이다. 혹은 처사로 혹은 벼슬을 하며 대대로 그 고을에 터를 잡아 은거하며 뜻을 길러오다가, 공이 떨치고 일어나 높은 관직에 올라 위로 삼대의 증직(贈職)을 받았으니, 전례에 따른 나라의 은전이었다.

공은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서 공부하다가 성종 23년에 시행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승문원(承文院)에 발령을 받고, 태학(太學)에 들어간 지 칠년만에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공은 나이가 아직 젊었는데 연산군(燕山君) 앞에 엎드려 정승(政丞)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말로 대들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자 연산군(燕山君)이 크게 노하여 "남을 비방하여 헐뜯는다."고 하며 공을 파면해 버렸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유사(有司)가 공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복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연산군(燕山君)이 공을 더욱 싫어하였기에 겨우 외직(外職)에 임용되었다.

연산군(燕山君) 10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일찍이 언론의 직책에 있었던 자들이 모두 화를 입자, 공 또한 남방으로 유배되었다. 병인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연산군(燕山君) 때에 쫓겨났던 인사들이 모두 기용되면서 공도 거창현감(居昌縣監)으로 선임되었다.

얼마 후 공의 능력이 작은 고을을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여 태상시(太常寺 ; 봉상시)의 판관(判官)으로 전임되고, 곧 지평(持平)으로 옮겨졌다.

중종 2년에는 교리(校理)가 되고, 얼마 후 장령(掌令)과 사인(舍人), 집의(執義)등을 역임한 후 군기시정(軍器寺正)과 홍문관(弘文館)의 직제학(直提學)을 지내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발탁되었다.

공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세 차례나 봉직하였는데, 그 때마다 사고를 만나 두 번 좌천되고 한 번은 지방을 구휼하기 위하여 외직을 맡았다. 그 사이 충청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김해부사(金海府使)를 맡기도 하였다.

이는 공의 무예(武藝)와 병법(兵法)에 관한 능력을 시험해 보고, 또한 부모를 모시고 싶다는 공의 청원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부친의 상(喪)을 마친 후 좌승지(左承旨)로 기용되었을 때 공은 노모의 봉양(奉養)을 걱정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왕이 "여러 형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안찰사(按察使)에게 신칙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물을 조달하라고 지시하니, 이는 공으로 하여금 공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은전(恩典)이었다.

중종 17년에 다시 도승지(都承旨)에 임용되니 무려 네 차례나 승정원(承政院)에 들어간 셈이었다. 그리고 이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과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의 참판(參判)을 역임한 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발령을 받았으며, 얼마 후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병으로 사직을 하고 서둘러 가마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동파역(東坡驛)의 객사(客舍)에 이르러 운명하니 중종 22년 6월 28일의 일이다.

공은 집안의 일이나 공무에 한결같이 충직하고 순후(淳厚)하였다. 평생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였는데,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술자리에서 만나면 반드시 깍지를 끼고 활을 쏘게 하였다.

사귐에 있어서도 모를 드러내지 않고 이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였고, 이 때문에 더럽혀지듯 벌벌 떨지 않았으며, 손을 내저으며 등을 돌리는 자는 자기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하였다.

다만 운이 나빠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곤궁한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면서도 항상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아 아! 참으로 슬프다. 예순 셋의 나이로 생(生)을 마치니!

부인 정씨(鄭氏)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으나 일찍 죽어 동생 건(騫)의 아들인 정견(庭堅)을 후사로 삼아 시서(詩書)의 유업(遺業)을 부탁할 곳이 있게 되었는데, 선대의 음덕으로 참봉(參奉)이 되어, 영구를 부축하여 선영(先塋) 아래에 모셨다. 명(銘)하노라.

영재 종원 아들형제 박사학위 취득



장남 진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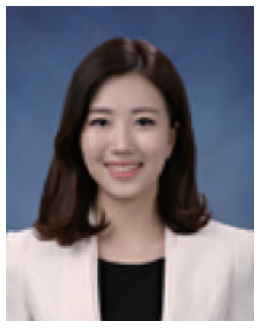


차남 정훈 군

장남 진환(振煥, 82년생)군은 부산 금정고등학교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대학원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 라이트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차남 정훈(正勳, 84년생) 군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 코넬대학교에서 의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코네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훈군은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수상하는 K99/R00 연구비를 5년간 1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맹춘 장녀 제65회 행정고시합격



맹춘 종원(절도사공파)의 장녀 아람(제, 91년생)양이 제 65회 행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아람(조부 권규, 부 맹춘, 모 손광선) 양은 부산 예문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맹춘 종원의 3녀중 장녀이다.

조우성 경남도의정회 제15대 회장 선출



함안군 군북면 출신 조우성(대소헌공파, 55년생) 종원이 지난 5월 25일 경남도의정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조우성 종원은 경남도의회 제 9대, 10대 의원으로 10대에는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우성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먼저 의정회 정관사업 중 도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 중 시대의 화두가 되어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단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간 상호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조우성 회장은 창원시 소재 ㈜영광산업 대표이사로 창신고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창원 극동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제5회 함조 영남골프대회



지난 10월 10일 ~11일간 1박 2일로 전남 장흥 J&J골프장에서 제5회 함조 영남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화창한 날씨 속에 개최된 이 날 대회는 영남에 거주하는 종원 28명이 참석하여 골프와 저녁 만찬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영남골프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함조부산골프회(회장 '용운' 총무 '하래')에서 주최하여 수고해 주셨다.

97세 할머니 "한국인의 밥상" 출연



2021년 8월 30일 KBS 1 TV "한국인의 밥상" 촬영팀이 경전선 순례 길에 '함안군 군북면 원북마을'에 들러 97세 할머니의 밥상을 촬영했다.

배우 최불암(84세)과 함께 출연한 오두심 할머니는 채미정 뒷집에 살고 있으며, 虞候公 후 參議公派 (망)星奎 족위의 부인으로 인근에서 최고령 할머니시다.

특히 배우 최불암씨는 채미정, 전서공 신도비, 13충 비원, 서산서원 등 종중의 유적을 둘러보고 咸趙의 뿌리를 확인하고 감탄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본 촬영분은 9월 16일 19시 40분 방영되었다.

채미정 동산 둘레길 정비



독립유공자비 및 13충비원을 「함안조씨충의비원」이라 명하고 입간판 설치 및 주변 정화작업 일환으로 동산 둘레 산책길을 군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1차로 5천만원을 들여 지난 9월 28일 시공하여 11월 1일 완공하였는데, 나머지 못다한 공사는 2022년에 2차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22년 사업추진 현황

No	사업명칭	비 고
1	정절공 어계체험관 건립	예산확정
2	충의비원 정비사업	
3	채미정 보수사업	
4	전서공 묘역 문화재 지정	
5	정절공 태지 조성사업	
6	응암재 경내 및 주변 정비사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부 별세



宗婦 조설좌(曺雪佐, 30년생) 여사께서 2021년 11월 16일 노환으로 향년 92(庚午生)로 타계하셨다.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본 문의 대소사를 관장하셨기에 더욱 더 哀悼하며 冥福을 기원하는 바이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호국영령으로 모셔져 있는 부군(故 顯儁) 곁에 永眠에 드셨다.

대종회 고문 趙英濟 별세



대종회 고문이신 괴암 조영제(槐菴 趙英濟, 前 執義公派宗會長)님이 2021년 7월 26일 향년 89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평소 인자, 온유하였으며,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해 왔다. 가정은 미망인 박판남 여사와 슬하 3남1녀를 두셨다.

대종회 고문 趙相來 별세



대종회 고문이신 담재 조상래(淡齋 趙相來, 前 虞候公派宗會長)님이 2021년 7월 25일 향년 89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한학자로서 평소 대종회를 위하여 많은 자문을 해 왔으며 특히「함안조씨문적총관」 발간 책임 편집위원으로써 방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 편역한 업적을 남기었다.슬하에 1남 2녀를 두셨다.

南溪公派宗會 任員 개선



신임 鏞得 종회장

2021년 11월 16일(음 10월21일) 14시,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경모재에서 남계공 선조의 辛丑年 묘향을 봉행한 후 개최된 남계공파종회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다.

오랫동안 종회를 이끌어 온 우천 수남(愚泉 秀男(鏞)종회장의 후임으로 수암 용득(守菴 鏞得, 대소헌공파) 대종회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경제(敬濟, 대소헌공파) 총무는 유임되었다.

신임 鏞得 종회장은 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젊은 종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종회운영을 위하여 남계공파 종원 주소록을 정비코자하니 종원 여러분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 주소 : 함안군 법수면 윤산2길 34
전화 : 010-3559-4352

청송 제일의 정자, 함안조씨 방호정(方壺亭)[1)]

조 명 래[2)]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북으로 보현산을 지나 청송으로 발길을 재촉하여 보현댐과 노구재터널을 거쳐 청송군 안덕면 경계를 들어서면, 갈림길에서 안덕면 소재지와 방호정(方壺亭)을 알리는 이정표가 반긴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약 8㎞를 내려가면, 청송팔경(靑松八景) 가운데 제1경인 길안천 상류의 신성계곡(薪城溪谷)에는 구불구불한 감입곡류(嵌入曲流)와 더불어 기암괴석(奇巖怪石)이 선경(仙境)처럼 우뚝 솟아있고 그 중턱에 마치 새집처럼 살포시 얹혀있는 방호정(方壺亭)은 청송군 정자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다.

방호정(方壺亭)은 1619년(광해군 11년)에 방호(方壺) 조준도(趙遵道・1576~ 1665)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모(思慕)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모 안동권씨(安東權氏)의 묘가 바라보이는 방대(方臺)에 세운 정자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1호(1984.12.29.)로 지정되었다.

조준도(趙遵道)의 본관은 함안(咸安),자(字)는 경행(景行). 호(號)는 방호(方壺)로 생육신(生六臣)의 한 분인 정절공(貞節公) 어계(漁溪) 조려(趙旅) 선생의 5대손이다.

증조부(曾祖父) 조삼(趙參)의 자는 노숙(魯叔), 호(號)는 무진정(無盡亭)으로 1489년에 진사(進士), 1507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냈고, 조부(祖父) 조정백(趙庭柏)의 자는 중간(仲幹)이고 호(號)는 덕은(德隱)으로 관직이 예빈시별제(禮賓寺別提)이며, 아버지 조개(趙介)의 자는 여방(汝方)으로 관직이 부사직(副司直)이다.

조준도(趙遵道)의 생가 증조부 조연(趙淵)이 중종5년(1510년)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이 되었으나 중종 14년(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들이 화(禍)를 입자, 중종 15년(1520년) 무렵에 원벽(院壁)에 간신배를 규탄하는 암무시(暗霧詩)를 지어 붙이고 청송(靑松) 안덕(安德)의 처가로 낙향한 것이 함안조씨(咸安趙氏)가 청송에 입향(入鄕)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계부(季父)를 잘 따랐던 조정백(趙庭柏)은 청송으로 낙향한 조연(趙淵)을 찾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곳에서 월성이씨(月城李氏)와 혼인을 하였고, 또한 조연(趙淵)이 고향 함안으로 귀향하자 할아버지의 명을 받은 손자 조지(趙址)가 청송 안덕에 복거(卜居) 하면서 함안조씨(咸安趙氏)는 청송의 벌족(閥族)으로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다.

조준도(趙遵道)는 망운정(望雲亭) 조지(趙址)의 넷째아들로 태어나 선조 14년(1581년) 여섯 살 때 재종숙 조개(趙介)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한창 재롱을 피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난 공의 마음에는 평생토록 생모 안동권씨를 사모하는 정(情)이 가득했음이 시에 잘 담겨 있다.

誰道方壺在閬風 / 방호가 낭풍산에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偶來占得此山中 / 우연히 와서 이 산속에 자리 잡았네.

臺空廿載天慳久 / 20년간 텅 빈 방대는 하늘이 오래 아낀 것

壁立千層鬼鏤工 / 높이 솟은 석벽은 귀신의 좋은 솜씨로세.

特地奇觀屛裏畵 / 특별한 이곳 기이한 경치는 병풍 속의 그림

前人佳句筆端虹 / 전인의 아름다운 시구는 붓끝의 무지개

構亭只爲瞻邱壟 / 정자 지은 건 어머니 묘소 보기 위한 것

孤露人間五十翁 / 부모 여읜 이 몸 벌써 나이 쉰 살이라네.

생모 안동권씨(安東權氏)는 고려태사(高麗太師) 권행(權幸)의 후예로 5대 조부 권명리(權明利)께서 처음 청송 안덕에 사셨다.

증조부는 권목(權穆)이고, 조부는 권간(權幹)이며, 아버지는 습독(習讀) 권회(權恢)로 1539년에 태어나 1562년 망운정(望雲亭) 조지(趙址)와 혼인하여 슬하에 수도(守道), 형도(亨道), 순도(純道), 준도(遵道), 동도(東道)의 5남과 신지제(申之悌), 장후완(蔣後琓), 이종가(李從可)에 출가한 3녀를 두었다.

1620년 이민성(李民宬)이 지은『풍수당기(風樹堂記)』에 '내 들으니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담장에도 부모의 얼굴이 비쳐 보인다고 하니 하물며 좋은 경치를 대하였을 때 어찌 부모를 사모하는 느낌이 없으랴'는 기사와 같이 정자 이름을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풍수당(風樹堂)의 편액을 걸었다고 했다.

풍수당(風樹堂)은 『한씨외전(韓氏外傳)』의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 즉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따왔다.

원주의 선비 우담(愚潭) 정시한(鄭時翰・1625~1707)이 1688년 9월 2일『산중일기』에 '이곳을 찾아보니 풍수정(風樹亭) 세 글자가 크게 써서 붙였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훗날 방호정(方壺亭)이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호정 입구에 들어서면, 신성계곡의 협곡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아치교가 앞을 가로막는다. 방호교는 1990년 후손 조학래(趙鶴來)가 공사비를 헌성(獻誠)하여 원래는 현수교로 건립했으나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피해로 붕괴되자 청송군에서 지금의 아치교로 복구했다.

조준도(趙遵道)는 『자일산기(自逸山記)』에 '보현산에서 발원하여 사십 리를 흐르다가 쌍계(雙溪)로 합류하고, 또다시 오리를 지나 보현산 동쪽에서 흐르는 물과 삼합수(三合水)가 되니 수세(水勢)가 점점 커져서 깊은 곳은 배를 띄울 만하고 양쪽의 깎은 듯한 절벽이 서로 굽어 돌아 마치 병 주둥이와 같은 그 가운데에서 물이 나오는 까닭에 이름을 방호(方壺)라 했다'고 적고 있다.

『열자탕문(列子湯問)』에는 '발해(渤海)의 동쪽에 대여산(岱輿山)・원교산(員嶠山)・방호산(方壺山)・영주산(瀛洲山)・봉래산(蓬萊山)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물이 많고 과일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으며,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모두 신선의 자손'이라 한 바와 같이 방호정(方壺亭)은 곧 신선이 사는 방호산(方壺山)으로 생각했다.

방호(方壺) 조준도(趙遵道)는 중형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와 창석(蒼石) 이준(李埈), 풍애(楓崖) 권익(權翊), 하음(河陰) 신집(申楫) 등과 교유하면서 방호정이 자리한 신성계곡을 선경(仙境)으로 여겼다.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의『오선동기(五仙洞記)』에 '을묘년(1615년)에 이숙평(李叔平)이 영양(永陽)에서 방대에 와서 함께 노닐다가 사흘 뒤, 이숙평이 화산(花山)으로 떠나자, 신여섭(申汝涉), 권경보(權景輔)와 나의 아우 경행(景行) 등과 멀리 송제(松蹄)에서 전송키로 했다. 신성계곡을 따라가다가 이숙평이 시냇물 중간에 대여섯 정도가 앉을 만한 반석을 발견하고 주석(酒席)을 펼치니 분위기에 취해 모두 속세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숙평이 말하기를, '이곳은 조물주가 오래도록 비장한 곳이니 산의 이름은 자하(紫霞)로 골짜기의 이름은 오선(五仙)'이라 하였다.

이에 조준도(趙遵道)가 사다리를 타고 암벽에 조형도(趙亨道)는 청계도사(淸溪道士), 이준(李埈)은 상산일호(商山一皓), 권익(權翊)은 청부우객(靑鳧羽客), 신집(申楫)은 청학도인(靑鶴道人), 자신은 송학서하(松鶴捿霞)라고 이름을 썼다.

오선(五仙)은 다섯분의 선비가 스스로 신선이라 자처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손들이 이를 추념하여『오선동오선생유허비(五仙洞五先生遺墟碑)』를 세웠다. 오선동(五仙洞)은 지금의 신성계곡에서 안덕면 고와리 백석탄과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사이로 추정한다.

방호교를 건너 방호정에 들어서면 먼저 송하문(松霞門)이 반긴다. 송하문(松霞門)은 방호정의 주인 조준도(趙遵道)가 자신을 송학서하(松鶴捿霞)라고 불렀던 것에서 따온 것이다.

송하문 동쪽 문간에는 방호문집(方壺文集)과 조준도(趙遵道)의 7대손 현은(玄隱) 조기영(趙基永)이 함안조씨 역대 인물을 편찬한 파산세록(巴山世祿)의 판각(板刻)을 보관하고 있다.

방호정에는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제방대정(題方臺亭)』시가 전하고 있다. 김성일은 안덕 당 밑(堂底)의 여흥민씨 외가에서 태어났고, 방호공(方壺公)의 족형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와는 교분(交分)이 두터웠다.

玉峽應千疊 / 산골짜기 천 겹으로 겹쳤으니

寒溪幾曲流 / 시내는 몇 굽이로 흐르겠는가.

孤村當谷口 / 외딴 마을 골짝 어귀에 자리하고

危榭倚巖頭 / 높은 정자는 바위에 기대있네.

籬吠雲中犬 / 울타리가 에선 산속 개가 짖고

沙眠海上鷗 / 모래밭에선 바다 갈매기 조네.

客來仍坐久 / 객이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春日下汀洲 / 봄날 해그림자 물가로 내려오네.

조준도(趙遵道)의 『자일산기(自逸山記)』에는 '학봉 선생 시에 이른바 "외딴 마을 골짝 어귀에 자리하고 높은 정자는 바위에 기대있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다. 옛날 박한원(朴漢元)의 정자였는데, 허물어진 빈터를 화산(花山) 권응수(權應銖)가 차지한 것을 1619년 봄에 사서 정자를 지었다'는 기사로 김성일이 오래전에 이곳을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정자 안에 들어서면 1827년에 세운 『방대강당(方臺講堂)』이 우뚝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방호정은 정자인 동시에 강학(講學)의 장소이자 향사(享祀)를 모셨던 곳이기도 하다.

방호(方壺) 조준도(趙遵道)의 유풍여운(遺風餘韻)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후인들이 뜻을 모아 철종 14년(1863년) 정자 곁에 묘우(廟宇)를 세우고 제향(祭享)을 행하였으나, 고종 5년(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사연이 『방호조선생향사유허비(方壺趙先生享祀遺墟碑)』에 적혀 있다.

방호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이다. 대청 뒤로 2칸의 온돌방을 배치하였고, 온돌방 좌측에 부엌과 방 1칸을 돌출시켜 ㄱ자형의 건물로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을 혼용하였다.

정자 안에는 풍수당(風樹堂) 편액과 학봉 김성일을 비롯한 여러 선비의 시판 등이 걸려 있다.

정자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보현산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가득 고였다가 흘러가고, 좌측에는 조준도(趙遵道)의 생모 안동권씨의 묘가 있는 금대(金臺)가 한눈에 들어온다. 정자 바로 앞에는 에워싼 산줄기가 진골마을을 품고 있으며, 오른쪽 산등성이에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집중호우로 흙이 쓸려가면서 드러난 연한 회색 암반에 4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방호정과 인접한 신성리 공룡 발자국은 약 1억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 단일 지층으로는 최대 면적(약 2,400㎡)이며,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전망대가 갖춰져 있다. 백석탄과 더불어 이곳은 청송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하나이다.

조준도(趙遵道)는 10세에 백형 조수도(趙守道)를 따라 퇴계문인(退溪門人)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선생에게 수학했으며, 13세에 아버지의 상(喪)을 당해 예를 다해 어른처럼 집상(執喪)하였고, 생가 부모를 지성껏 섬겼으며, 15세에 보현사(普賢寺)에서 글을 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중형(仲兄)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와 아우 지악(芝岳) 조동도(趙東道)가 창의(倡義)하였으나 생가 어머니 봉양으로 함께 출전하지 못한 충분(忠憤)한 마음을 시를 지어 달랬다.

男兒事業豈徒我 / 남아의 사업이
어찌 헛될 손가
會斬巨魁秀吉來 / 적괴 수길(秀吉)의 목을
베고 보무당당 돌아와서
凌煙閣上留名後 / 공신각 높은 벽에 이름을
걸어놓고
還向滄州理釣臺 / 창파에 몸을 씻고 낚싯대
를 드리우리
.

선조 27년(1594년) 자형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가 예안 현감의 되자, 예안 임지에 가서 도산(陶山) 선비인 금응훈(琴應壎)·김강(金堈)·이일도(李逸道) 등과 더불어 종유 하면서 학문을 강론하고 돌아왔다.

그 뒤 한강(寒岡) 정구(鄭逑)·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세 분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수양을 위한 학문을 익혔다.

인조 5년(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방호공(方壺公)은 청송 관아로 가서 이수경(李秀卿), 정심원(鄭深源), 아우 조동도(趙東道) 등과 더불어 창의할 것을 의논하였더니 관아에서 공을 천거하여 의병장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년) 5월 8일에 '이식(李植)이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청송(靑松)에 사는 사인(士人) 조준도(趙遵道)가 벼 300석(石)을 헌납하였다(李植以缺廳言啓曰 靑松居士人趙遵道納租三百石)'는 기록으로 보건대, 호란(胡亂)으로 어려운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방호공(方壺公)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조준도(趙遵道)는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고을 사람들의 천거로 의병장의 소임을 맡았다. '이토록 중한 임무는 병들고 늙은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니나, 정묘년에 침범했던 이 도적과는 한 하늘아래서는 같이 살수 없다' 하며, 의병과 의량을 모집하는 통문을 발송하는 등 출전을 준비하여 문경으로 군량을 운반하고 영남 의병과 함께 출전하려던 차에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둔산(大遯山)으로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나라에서 나이 80세 이상인 자를 우대하여 수직(壽職)의 은전을 내리는 관례에 따라 자식들이 소(疏)를 올리려고 하자 방호공(方壺公)이 이를 금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이 사실을 알고 현종 임금께 아뢰어 89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고 부호군(副護郡)으로 제수했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하고 있다.

방호(方壺) 조준도(趙遵道)는 한평생 명리(名利)에 초연하였고, 오로지 충효(忠孝)에 일이관지(一以貫之)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조준도(趙遵道)의 유훈을 이은 후손들은 입신양명(立身揚名)보다는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수기치인(修己治人)에 힘을 쏟았고, 한 말에 나라가 위난(危難)에 처하자 1896년 청송의진(靑松義陣), 1906년 영천 산남의진(山南義陣), 1919년 3.1만세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앞장섰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기려 조근백(趙根佰)에게 애국장을, 조병국(趙柄國)에게 애족장을, 조독호(趙篤祜), 조성눌(趙性訥), 조성로(趙性魯), 조성박(趙性璞), 조성태(趙性台), 조규락(趙奎洛), 조규진(趙奎震), 조성규(趙誠奎) 등에게 건국포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주)----------

1) 2017년 대구 박약회 『유학과 현대』에 기고했던 「문중 탐방」 자료이다.
2) 방호 조준도의 13대손. 본회 청장년 위원회 회원.
3) 영양(永陽) : 영천의 옛 지명.
4) 송제(松蹄)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송제역이 있었음.

대종회 운영협찬금 명단

(2021.6.10.~12.20)-접수순-

《임원회비》

(단위:천원)

國濟	창원	부회장	100
鏞杉	창원	부회장	100
在泰	대구	운영위원	200
局來	대구	운영위원	200
曉濟	함안	사무총장	200
壽濟	함안	감사	100

《종회운영자금》

(단위:천원)

鏞岩	창원	고문	100
洪來	의정부	고문	500
漢濟	함안	자문위원	100
彧濟	함안	자문위원	100
虎濟	창원	자문위원	100
鏞讚	함안	자문위원	100
政奎	창원	대표자문	200
孟濟	고성	자문위원	50
虎濟	창원	자문위원	100
漢奎	부산	자문위원	200
현호	진주	종원	50
기성	광양	종원	20
인남	거창	종원	50
정남	진천	종원	50
현식	안동	종원	100
광제	서울	종원	50
영재	부산	종원	200
길래	부산	종원	100
종래	(주소불명)		100
울산화수회(회장 顯旭)			250
판결사공파 조암종중			200
동지공파(회장 性五)			300
판결사공파 오곡종중(회장 聖濟)			100

지로용지 분실시 입금계좌 번호

(농협) 177441-51-001861

예금주 함안조씨대종회

홈페이지 개선

「함안조씨대종회」 홈페이지를 컴퓨터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 확장형으로 보완 개선하여 컴퓨터, 핸드폰, 테이블 PC 등 여러 방면 선택적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다.

네이버 또는 다음 등에서 **「함안조씨대종회」**를 입력하여 방문하면 다양한 자료와 건의사항 등, 종원이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종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대종회가 보다 더 종원과 가깝게 다가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묘제 상차림표



서산서당 채례 상차림표

조율이시(棗栗梨柿)에 담긴 의미

棗(대추나무조)
栗(밤나무 율)
梨(배나무 이)
柿(감나무 시)

조율 이시
(棗栗梨柿)
에 담겨진
심오(深奧)
한 의미를~"^

명절茶禮床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대추(棗),밤(栗),
배(梨), 감(柿), 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深奧)한
뜻이 있습니다".

대추(棗)~
대추나무는 암수가
한 몸이고,
한 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꽃 하나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나서 꽃이 떨어집니다".

헛꽃은 절대로 없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추씨는 통씨 여서
절개(節槪)를 뜻하고 순수한 혈통과 자손(後孫)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대추는 붉은 색으로 임금님의 용포(龍袍)를 상징하고 씨가 하나이고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큰 것이 특징이므로 왕을 뜻합니다".

왕이나 성현(聖賢)이 될 후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와 죽은 혼백(魂魄)을 왕처럼 귀히 모신다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밤(栗)~밤나무는 땅 속에 밤톨이 씨밤(생밤)인 채로 달려 있다가 밤의 열매가 열리고 난 후에 씨밤이 썩습니다".

그래서 밤은 자신의 根本을 잊지 말라는 것과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유로 밤나무로 된 위패(位牌)를 모십니다".

유아(幼兒)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시처럼 차츰 억세었다가

"이제는 품안에서 나가 살아라."하며 밤송이처럼 쩍 벌려주어 독립된 생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은 한송이에 씨알이
세 톨이니

3정승(政丞), 즉
領議政, 左의정,右의정)
을 의미합니다".

배(梨)~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하고,

오행(五行)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흙의 성분(土)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족의
긍지(矜持)를
나타냅니다".

배의 속살이 하얀 것으로 우리의 백의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 제물(祭物)로 쓰입니다".

배는 씨가6개여서 六曹(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判書)
를 의미합니다".

감(柿)~콩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 인데
감(柿)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柿)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이 고욤(쌍떡잎식물 감나무모목) 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립니다".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 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 처럼 아픔이 따릅니다".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善人)의 예지(叡智)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고,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 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 고 합니다".

감(柿)은 씨가 8개여서 8방백(8도 관찰사, 8도 감사)를 뜻합니다".

8도 관찰사가 후손에 나오라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사상(祭祀床) 또는차례상(茶禮床)의 主된 과일로 대추, 밤, 배, 감이 오르는 것은
이들이 상서(祥瑞)로움, 희망, 위엄(威嚴),벼슬을 나타내는 전통적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나 차례 상을
준비할 때 이정도 지식을 갖추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지요?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자손된 당연한 도리로서

대대손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입니다".

(퍼온 글)